

□ 시리즈 — 인문학의 부활을 꿈꾸며 (完)

눈앞의 보석보단 먼곳의 보물섬을 보아라

전반적인 학문의 폐쇄성극복이 인문학의 살길

윤재학

(외국어대 영문과 교수)

여러 인쇄 매체를 통해 '인문학의 위기'를 최근 들어 자주 접한다. 이러한 기사는 예외 없이 인문학은 지고한 가치를 지니며 당위적인 분야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호소는 전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사실, 인문학의 가치를 묻는 것은 우문에 속한다. 이 분야는 다수에게서 흥미를 유발시키며,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학문으로서의 위치가 확립되어 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역사, 철학, 언어, 그리고 문학 등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문학은 이미 충분한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인문학이 사치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인문학은 사치'라고 생각하는데 있다.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전산학을 전공하면 졸업하기도 전에 높은 급여를 받는 직장을 쉽게 얻는데 반해, 역사를 공부하고 이것도 모자라 해외 학연수까지 마쳤는데 졸업 일년 후에도 변변한 직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

므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정부와 대학 당국은 전산학 분야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역사학 분야의 지원 인원 및 경비를 감축한다.

위의 주장은 거의 완벽한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가지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이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고시 합격이 개인적 편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대다수 대학생이 고시 준비에 매달리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이익에 반한다. 사회는 균형과 조화를 통해 선에 이른다.

둘째, 이 결론은 역사학 분야의 지원 감축은 우리의 관심을 역사학 전공자에 국한시켰을 때만 설득력을 가진다. 역사학 전공자의 취업난 자체가 역사학 강의의 축소 논리를 합리화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대다수의 인문학 소비자인 비전공자들의 관심이 훨씬 더 큰 변수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 맡기면 인문학은 파멸한다는 의견에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인문학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후진성을 지닌 학문 집단이 인문학을 대항 여력이 없을 지 모르나 선진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평범한 학생에게는 인문학은 당장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사치일지 모르나, 지도적 위치에 서게 될 인재에게는 전공에 관계없이 필수적이다. 이는 마치 산업화 과정에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던 후진국이 선진국의 문명에서 환경 비용을 이전 보다 몇 갑절 더 부담해야 되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해서 인문학을 소홀히 하고 범국가적으로 목전의 실리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결국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궁실은 순서

- 1.인문학 위기의 주원인
- 2.인문학의 가치
- 3.외국의 인문학 위기
- 극복사례 및 대응방안
- 4.인문학을 다시 일으키기
-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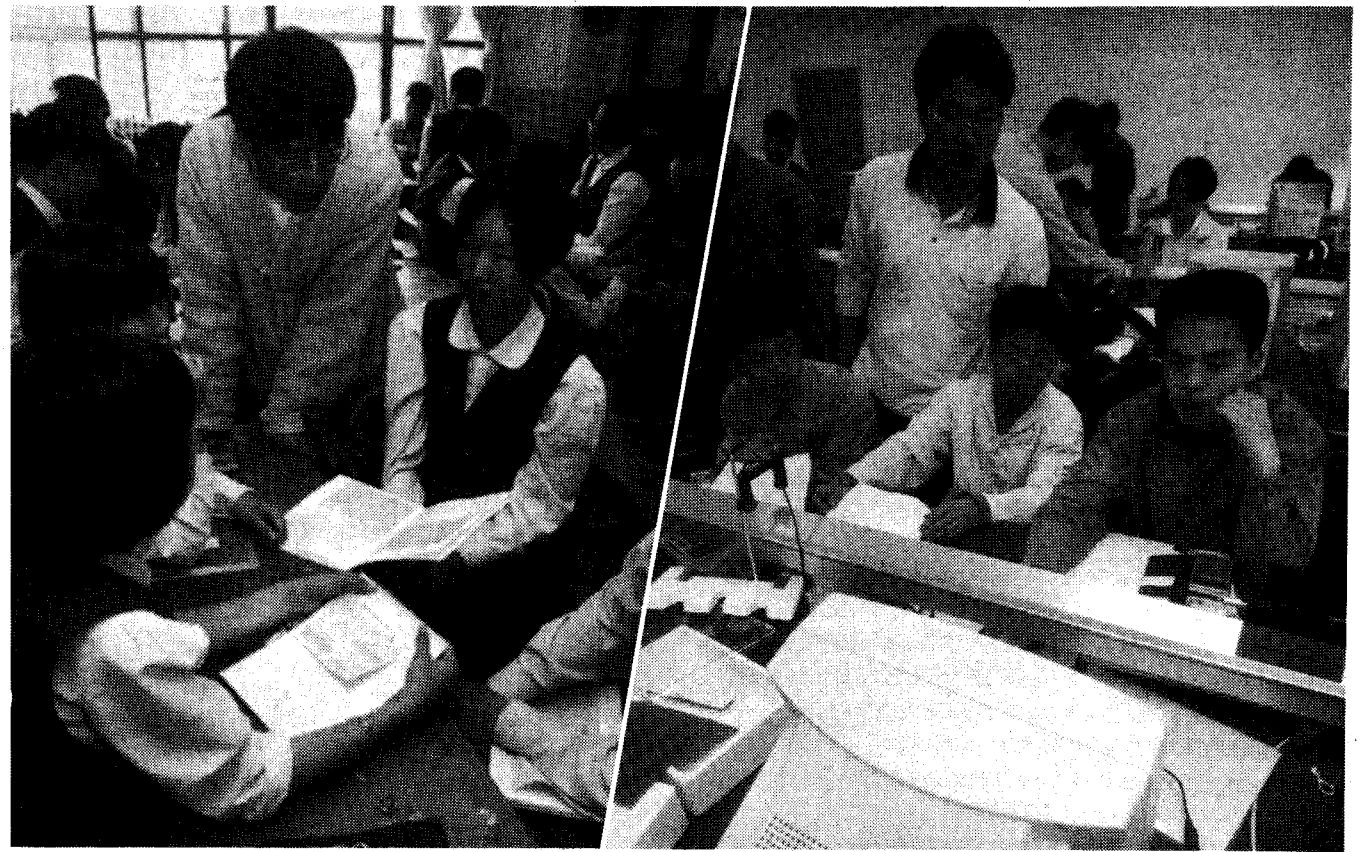
이에 근거해 아래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인문학 담당자들의

자세에 전환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첫째, 인문학 담당자들의 자세에 전환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전공학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공 과목이라고 할지라도 일부를 '교양 과목화'하여 외부 학생들이 수강가능하도록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잠재적인 수요자들의 이유있는 '입맛'에 맞추어 강의의 개설할 필요가 있다. 노문학도가 아니라도 도스도예프스키의 문학에 관심을



▲인문학은 응용학문과의 형평성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가진 학생이 많다. 이들에게는 노어노어 교재는 무의미하다. 번역판을 사용하는 것은 문학의 보전성(integrity)을 해치는 면이 있지만 이를 통해 다수의 학생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전공자 수에 집착하기 보다는 타전공 학생에게 학문을 전수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인문학 교수는 타분야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다. '문학 사상사'를 화학전공자에게 가르치는 것이 '분자 분광학'을 영문학도에게 전수하기 보다 쉽다.

둘째, 학제간의 폐쇄성을 타파해야 한다. 간혹 교수 초빙 공고에서 학부, 대학원에서 같은 전공을 공부 하는것이 임용 조건이라는 것을 본다. 폐쇄성과 비학문성의 극치이다. 전공을 바꾸어서 학위를 취득한 학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새로운 안목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망정 그 자체가 해가 된다는 발상은 어디서 유래했을까?

올바른 지도를 통해 관련 학문의 수장을 적극 권장 혹은 요구해야 한다. 최

근 인기를 끌고 있는 신문방송학도가 언어학, 근대사, 혹은 철학에 대한 이해 없이 정상적인 기자나 논설자가 될 수 있을까? 외교학, 국제 관계학 전공자에게는 서양사와 동양사가 선택 사항일 수는 없을 것이며, 해당 지역의 문화와 문화에 대한 이해 또한 불가결한 요소이다.

인문학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

세계적으로 학제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 학문의 통합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에 반해 국내 대학의 학과간의 전반적인 폐쇄성은 고등교육 2학년에 시작되는 문,이과 구분 방식에서 연유한다고 판단된다. 인문계

출신에게 수학을 가르치지 않는 것, 자연계 학생에게 세제사와 무관하게 만드는 것은 지식 습득의 기회 박탈이며 편협한 안목의 조장이다.

이 폐쇄성은 또한 소속 학과목의 폐강에 대한 교수의 위기감과 기득권 수호의 집착에서 발생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 폐쇄성은 보호 무역주의에 비유할 수 있다. 무역 장벽은 자금 자족의 허약한 경제 체질과 생산성의 하락을 유도하지만, 시장 개방은 전반적인 학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셋째, 정책적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소극적 방법이지만,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 등의 지원단체에서 균형감각을 유지하여 응용학문에 편중 지원하는 정책을 시정해야 한다. 기업체의 보조금과 연구비 지원이 공대를 위주로 집중되고 있는 형편에 공공 지원 단체에서 마저 인문학을 비롯한 순수 학문을 도외시하는 것은 다양성과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까운 미래에 대비하는 것에 실제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

□ 서평 — 감정과 이성

일반적인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난 감정 · 이성

감정은 우리 자신이 처한 삶의 상황과 조건에 부여하는 '의미' 때문에 생겨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의 일상적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람들은 생활하면서 많은 감정을 경험하고 이는 곧 우리의 일상생활을 이룬다. 즉 감정은 우리가 살아가기위해서 부딪히는 많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것들을 반영한다. 때로 흔히 비이성적이라 말하는 것처럼 통제가 불가능 할 때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감정과 이성을 나누어서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한다.

'감정과 이성을 둘로 나누어 보는 사고 방식'에 반대하며 그런식의 이분법이야말로 우리가 겪는 많은 감정적 문제들의 출발점'이라고 심리학자 리처드 래저러스와 그의 부인 버니스 래저러스는 함께 지은 '감정과 이성(Passion & Reason)'이란 저서에서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이성과 의지에 대한 관념들을 문화적으로 상속받으면서 감정적인 반응을 이성에 종속시키고 경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감정은 인간의 원시적인 영역이고 이성은 고상한 영역으로 존재한다는 통념에 쌓이게 된 것이다.

감정은 그 나름대로의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저자는 '감정이 생기는 것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별개'라며, 감정이 생기는 것은 감정을 느끼는 당사자의 개인적 의미나 상황평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이성적 사고와 패러럴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감정은 이성의 한부분이 아닌 또다른 이성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즉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이성(감정)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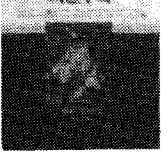
(지은정 기자)

시간안내



지역사회와 언론

지역언론 역시 변방의 외침일 뿐이다. 지역언론에 대한 개념정리에서부터 역사·현황·전망등 지역언론에 대한 연구를 기대했다. 지역언론 종사자들에게는 문제의식을 심어주는 실무지침서로, 지역주민에게는 언론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김세철의 지음, 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



할배, 왜놈소는 조선소랑 우는 것도 다름강? 일제에 의해 무너진 가족과 마을 공동체적 삶. 그 속에서도 끈끈하게 지조를 잃지 않은 할배의 모습을 담은 이 책은 우리 민족의 수난사와 극복의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선조의 모습에서 행동하는 지식인의 모습과 진정한 민족교육이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우칠 수 있다. 안재구 지음, 돌베개 펴냄

지역사회와 언론 지역언론 역시 변방의 외침일 뿐이다. 지역언론에 대한 개념정리에서부터 역사·현황·전망등 지역언론에 대한 연구를 기대했다. 지역언론 종사자들에게는 문제의식을 심어주는 실무지침서로, 지역주민에게는 언론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김세철의 지음, 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

사람과 사회와 자본주의 인간의 욕구인 성욕과 호화로운 사치가 자본주의 생성·발전에 원동력으로 작용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에 반기를 든 저자는 후기자본주의에서 희망적인 낙관론을 제시한다. 베르너 쾰바르트 지음, 까치 펴냄



대학별곡 제 3 계명



포항제철은 젊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이야기— “감사하십시오.”

하루 24시간 중 10분은

내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위해 감사의 글을 써보십시오

가족과 친구, 스승과 작은 도움이라도

지금의 나를 있도록 준비해준 사람들을

되도록 많이 떠올리고, 많은 편지를 띄우십시오

아마도 그 감사의 10분이 자신에게 더 많은 기회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제철의 철강기업

포항제철